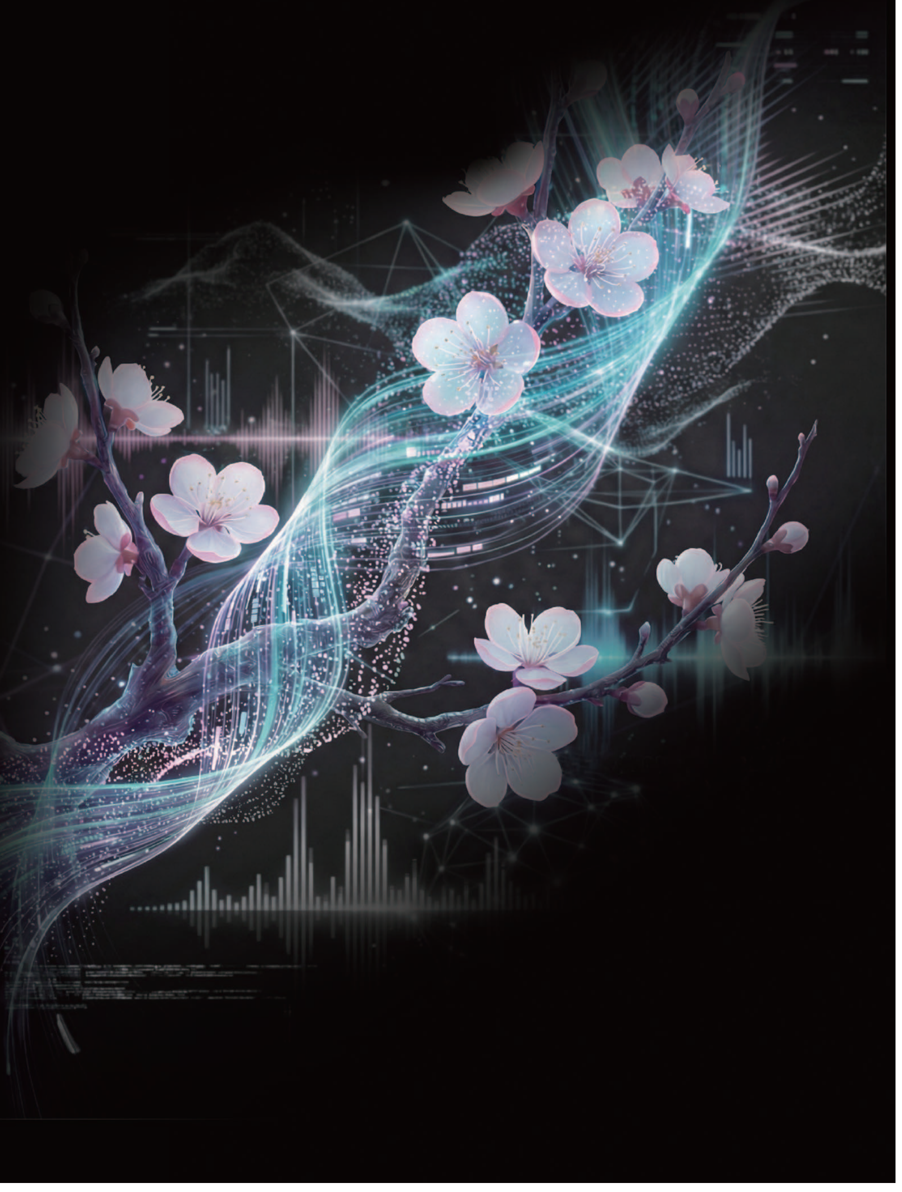
광양매화축제, 미디어아트로 소통한다

9~28일 광양매화문화관…이이남·김창겸 작가 등 참여
도시 정체성 재현… “자연·예술·기술 융합 문화플랫폼”



광양매화축제가 매화를 사계절 이어지는 빛으로 재해석하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주제인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를 예술로 확장한 기획 전시 ‘피어나는 데이터, 숨 쉬는 자연’을 9일부터 28일까지 광양매화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본 행사 기간(3월 14~23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운영되며, 축제 분위기를 조기에 조성하고 종료 이후까지 여운을 이어가는 ‘확장형 콘텐츠’로 기능할 전망이다.

전시에는 이이남, 김창겸, 방우송, 신호윤, 유영동, 조병철, Ustudio(이경호·장태산), 구남콜렉티브(구혜영·김영남) 등 국내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8팀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데이터와 자연’, ‘빛과 생명’을 키워드로 영상·사운드·설치·조형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의 리듬과 환경의 징후를 감각적으로 시각화하고, 매화가 상징하는 순환과 재생의 의미를 관람객이 직접 체감하는 경험으로 확장한다.

특히 ‘빛의 도시 광양’이라는 도시 정체성은 빛을 주요 매체로 활용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와 결합해 광양의 자연과 산업·도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데 의미를 더한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 안에서 빛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작품을 통해 매화의 상징성과 광양의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개막식 당일에는 방우송 작가가 작품을 직접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기획 의도와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축제형 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전시가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해 경관 중심 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미술 애호가 등 폭넓은 관람객층을 유입해 축제의 전국적 인지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경관을 감상하는 축제를 넘어 자연과 예술, 기술이 어우러진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광양매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여수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 착공

도로포장·해상교량 건설…이동권 향상 기대

여수시는 최근 남면 여남초등학교에서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여수 금오도로 향하는 길 정비, 지역발전과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슬로건으로 섬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여수시 의원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식전 공연, 기념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는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금오도 내 기존 도로포장 정비(2026년, L=2.25㎞), 2단계 월호도~대두라도~금오도 구간 해상교량건설(2027~2033년, L=3.42㎞), 3단계는 지방도 863호선을 국도 17호선으로 승격해 연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현재는 구상단계에 있다. 특히 2단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여수시와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는 금오도의 지역발전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보성, 민생 회복·소상공인 매출 증대 모색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최대 14% 특별 할인

보성군은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할인 혜택을 최대 14%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은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비율 확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에 결제 금액의 2% 캐시백이 적립돼 총 12%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결제 시 2% 캐시백이 추가로 적립돼 최대 14%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적립된 캐시백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애플리케이션의 ‘캐시백 ON·OFF’ 기능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ON으로 설정하면 결제 시 적립금이 우선 차감된다.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유지되며,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한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번 추가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은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사랑상품권 카드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등 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비대면 발급도 가능하다.

군은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해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사랑상품권은 군민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민생경제 정책이다”며 “이번 확대 시행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먹고 쉬고 즐긴다” 순천만국가정원 봄꽃 활짝

지난해 튤립이 만개한 네덜란드 정원 모습

새학기, 새출발의 설렘이 가득한 계절에 순천만국가정원이 1년 중 가장 다채로운 생명의 색으로 나들이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봄을 상징하는 튤립은 올해 전국 첫 개화 기록을 세우며 동원 맞이원과 스페이스허브, 네덜란드 정원 등 전역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특히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0종, 100만본 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튤립은 신축 재배장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스페이스허브·네덜란드 정원 튤립 60종 100만본 형형색색

백목련과 자목련도 노을정원과 나무도감원에서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고, 뒤를 이어 수선화, 아네모네, 벚꽃, 유채 등 250만송이 봄꽃이 3월 내내 릴레이처럼 피어나며 정원을 물들일 예정이다.

정원의 봄을 즐기는 방법은 보는 것, 찍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원을 무대로 정적인 방식의 멍 때리기가 아닌 손을 움직여 뇌를 숨 쉬게 하는 ‘생산적 휴식, 가든 멍’행사를 개최한다.

봄의 정원은 미식으로 완성된다. 벚꽃이 흩날리고 튤립이 만개하는 3월의 정원에서 특별한 미식 행사가 펼쳐진다.

소중한 사람들과 즐기는 피크닉과 예쁜 도시락 콘테스트가 따사로운 햇살 아래 펼쳐진다. 또한 BBQ빌리지와 프랑스정원, 장독대정원 등에서 즐기는 미식 경험은 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정원에서 먹고, 쉬고, 웃으며 눈과 입이 즐거운 진짜 봄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순 관광지를 넘어 도시경제를 돌리는 핵심 동력이자 심장이다. 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숙박·식사·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꽃과 어우러진 콘텐츠와 사람이 정원의 봄을 더욱 다채롭게 한다”며 “3월의 화려한 정원을 각자의 방식과 속도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즐기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장흥,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구명·소방설비 관리 등 점검

장흥군은 최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대덕읍 내저항 일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 8기 군정 핵심 기조인 ‘사고 예방 중심 현장행정’을 구체화한 조치로, 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했다.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등 8척을 대상으로 구명·소방설비 관리 상태, 기관·전기시설 안전성, 항해·통신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와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배터리 방전, 기상 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와 강풍 등 계절적 위험요인을 집중 안내하며 출항 전 자율 안전점검과 기상정보 사전 확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계도도 병행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곡성, ‘가업 잇는 청년’ 지원

리모델링 등 최대 2000만원

곡성군이 지역에 정착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청년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브랜딩 비용 등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 또는 배우자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했거나 승계를 앞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한 지 1년 이내인 자거나,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이내 승계 예정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곡성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천 상습 침수지역 개선

종합정비사업에 494억 투입

고흥군은 최근 고흥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고흥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고흥천의 하폭이 협소하고, 고흥시장 주변 저지대의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태풍·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총사업비 494억원(국비 247억원·지방비 247억원)을 확보해 고흥천 하도준설(2.5㎞), 교량 재가설(3개소), 급경사지 정비(2개소), 홍수 예경보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 이해 관계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고흥전통시장 진입 교량인 ‘고흥1교’의 재가설 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침수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